

# 부산시, '신중년 인턴십 사업'을 통해 300명에게 다시 일자리 기회 제공

✎ 김승원 기자 | Ⓜ 승인 2025.04.08 07:30



▲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뉴스파이어] 부산시는 신중년 세대의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신중년 인턴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00명의 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신중년 인턴십 사업’은 50세 이상의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채용장려사업이다.

수행기관인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신중년들에게 일정 기간 인턴십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양질의 인력을 연결해, 초고령화 사회에 숙련된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중년 인턴십 사업은 올해 총 7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며 '부산 50플러스인턴십'과 '시니어인턴십'으로 운영된다.

‘부산 50플러스인턴십’은 50~64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시니어인턴십’은 60세 이상 구직자에게 현장실습훈련을 제공하고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최대 5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상반기 참여기업 선발심사를 거쳐 50개의 '부산 50플러스인턴십' 참여기업체를 선발하고 50명의 인턴을 채용 연계했다.

선발된 직무는 △조선·선박 기자재 제조 △운송장비 제조 △식품 및 도소매업 △의료·복지, 운수업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시니어인턴십'에는 3월 말 기준 33개 기업에 100여명의 근로자가 참여 중이며 연말까지 150여명을 추가로 연계할 계획이다.

선발된 직무는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이다.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50플러스부산포털'을 참조하면 된다.

인턴 기간 만료 후에도 참여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신중년 인턴십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우선 선정된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이 사업은 신중년 구직자와 지역기업체가 일정 적응 기간을 통해 직무에 대한 이해와 인력에 대한 신뢰를 쌓으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신중년 일자리 지원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승원 기자 gtojong@naver.com